



첼리스트 요요 마가 서울 연주에서 남긴 흔적

강일모 / 문화일보 기자

첼리스트 요요 마가 내한 연주회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인 그가 한국에 와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가졌다는 것은 사건이다. 왜냐하면 바둑은 실력의 차이가 있을 때 약자가 돌을 몇 개 먼저 놓고 두면 비슷하게 열리볼 수가 있어도, 음악에서는 실력이 맞지 않을 때 한 쪽이 마음대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인들의 주요 경력 중의 하나는 '내가 누구와 협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요 마와 협연 기회를 가진 서울시향은 사실상 큰 영광이라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다.

요요 마는 지난 11월 6일 오전 10시, 그날 저녁에 가질 협연에 앞서 서울시향과 리허설을 가졌다. 리허설의 첫곡 드보르작 협주곡은 그런대로 잘 넘어갔다. 다음 곡인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에 이르자 도입부부터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따로 놀기 시작하며, 음악이 자꾸 멈춰 요요 마와 리허설에 참석했던 몇몇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 시작했다.

단원들은 지휘자 원경수씨가 음악을 너무 모른다며 불평을 했다. 원경수씨는 단원들에게 악보대로 연주할 것을 주문했다. 요요 마는 5 살에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외워서 연주할 정도로 소문난 신동이었다. 덩치 큰 첼로를 바이올린과 같이 섬세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요요 마에게 드보르작이건 쇼스타코비치건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요요 마는 지휘자와 서울 시향이 서로 빼격거릴 때도 화를 내지 않았다. 소문난 좋은 사람인 요요 마는 일반적인 협주자로는 있을 수 없는 자세를 취했다. 의자에서 일어나 오케스트라를 향해 섰다. 그는 객석을 등지고 단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가며 서서 연주했다. 그는 틈틈이 지휘를 하며 리허설을 진행했다. 때때로 음악 중간에 오케스트라에 대한 주문 사항을 시범보였다. 콘트라베이스에게는 "너무 음악적으로 연주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음을 내달라"며 피치카토를 해보였다.

KBS교향악단과 함께 우리나라 정상을 다루고 있다는 서울시향이 악보대로도 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부끄러운 것은 세계적 연주자 앞에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리허설이 진행되는 중에 가진 리허설 중간의 휴식에 아무도 연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빈 필하모니가 서울 연주를 가졌을 때 그들은 수차례 아시아 순회 연주에서 가졌던 같은 곡목을 연주했었다. 원로급 단원들 입장에서는 수백 번 연주해본 곡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리허설 중간에 수십 명씩 남아 개인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은 외국 유명 오케스트라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오케스트라는 연습은 없이 지휘자는 단원들이 자신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단원들도 지휘자가 실력이 없다고 불평한다. 모든 문제는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인 것이 우리 오케스트라의 현 주소이다.♣

95년 12월에 열리는 주요 음악회

- 소프라노 송광선 독창회 : 3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 국립 베를린 소년합창단 연주회 : 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정명훈 초청 서울시립교향악단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회 : 5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삶과 꿈 싱어즈 정기 연주회 : 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음악당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연주회 : 17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 피터 야블론스키 피아노 독주회 : 21일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